연중 제6주일
제1독서 : 예레 17, 5-8
제2독서 : 1고린 15, 12. 16-20
복 음 : 루가 6, 17. 20-26

숲정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루가 6, 20)

강 론

행복론

이수현 신부/여산 성당

한 대학생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쟁기를 잡았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씀, "하나의 목표점을 정하고 쟁기질을 하여라"하셨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쟁기질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를 목표점으로 삼고 쟁기질을 하였다. 그런데 똑바르게 되질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움직이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저 포플러 나무를 목표점으로 삼고 쟁기질을 해보아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니 과연 쟁기질은 똑바로 잘되었다. 예레미야서에 의한 제1독서에서는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고 전하고 있으며, 고린토전서에 의한 제2독서에서는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세상에 몸담고있는 우리이기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그 유명한 '행복선언'이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眞福者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 즉, 하느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 가난하게 살 줄 알고, 하느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누명과 미움, 그리고 박해를 달게 받는다면, 그들은 진정 행복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적인 잠시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참행복을 하느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쟁기를 잡고 있다. 적어도 풀을 뜯는 소를 목표점으로 삼는 쟁기질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소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인생 쟁기도 덩달아 꼬불꼬불 뒤엉켜 불행한 인생이 될것이며, 그 소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 불과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행복을 지향하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쟁기를 잡고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보며 쟁기질을 할 것인가?

여 명

祠鼠와 猛狗
(사당의 쥐와 사나운 개)

모 보 일(즈가리아)

"나라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사당의 쥐(祠鼠)나 사나운 개(猛狗)같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온전히 보전하려면 이같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재상으로 있는 관중(菅仲)에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근심거리가 무엇인가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당에는 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잡질 못합니다. 그 곳이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기 때문에 쥐를 잡으려고 불을 지를 수가 없고 물을 부어 쓸어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임금을 속이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없어져야 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교묘하게 임금을 방패로 삼고있어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사당의 쥐 같은 사람들 입니다."

관중의 말은 듣기좋은 말로 임금의 비위나 맞추는 간신들을 사당의 쥐로 비유하면서 이들을 가까이 하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술 파는 사람이 가게를 깨끗이 단장하고 잘 보이는 곳에 간판을 내건 다음 좋은 술을 빚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지만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사나워서 손님이 오면 물려고 달려들어 내쫓았던 것입니다. 나라에도 이처럼 능력과 기술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임금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맹구같은 사람들 입니다."

당초 관중은 환공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었다. 환공은 왕위에 오르자 관중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천하를 얻고 싶으면 그를 등용하라"는 포숙(鮑叔)의 간언을 받아들여 재상으로 삼았다. 관중은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공족(公族)들의 득세를 철저히 견제하면서 병제정비와 산업을 일으켜 나라를 부강시킴으로서 환공을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에 오르도록 했다. 그러나 관중이 죽자 간신들을 중용, 한바탕 반란소동을 빚더니 패자에서 밀려났을뿐 아니리 죽은지 60일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루지 못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만사(人事萬事)라며 훌륭한 인재를 찾고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예상밖의 인물을 내세우는 '깜짝쇼'와 임명된지 며칠만에 흠집이 드러나 물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끈과 사조직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고있을 때 '측근실세'들은 밖에서 스테이크를 대접받으며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지하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지더니 끝내는 국가 부도위기까지 몰아왔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는다.

"인선은 나 혼자 하겠다. 이런 저런 사람을 추천해 시끄럽게 하지 말라"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을 발표한데 이어 내각 인선 작업을 착수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사당의 쥐'나 '사나운 개'를 구분함으로서 간신들을 무분별하게 등용한 김영삼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숲정이 산책

"박수 !"

주님이 계시기에

이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땅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운동중의 하나인 *M.B.W*운동이 무엇인지 한국 그리스도 공동체 추진회장이신 조정오 신부(중앙성당 주임)님을 찾아가 알아보았다.

1997년에 열린 한국M.B.W 전국 모임

-신부님, M.B.W 운동이 무엇인지요?

+Movement for a Better World(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의 약자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30년대 후반에 이태리 출신인 예수회 소속사제인 롬바르디 신부님께서 전쟁과 같은 악이 사라지고 보다 나은 세상, 즉 형제애의 공동체인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세계로 확산되었고 특히 남미쪽에서는 기초공동체를 활성화 하므로써 교회조직의 쇄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M.B.W 정신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 건설이지요. 그 하느님 나라의 건설은 먼저 나자신의 변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시대의 교회모습인 친교와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며 정신입니다. 이것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M.B.W운동은 또 하나의 새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소속된 본당이나 공동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매주 모여 말씀을 나눈다거나 기도와 묵상을 하다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알게되지요. 그 다음 지속적인 공동체 영성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인 우리 신앙의 특성을 깨닫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먼 앞날을 바라보는 기초작업으로 본당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들 스스로 교회의 일원임을 깨닫고 이상에 이르지 못한 현실의 당면 문제를 깨우쳐 조금씩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이것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상황 안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소공동체와 기초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공동체는 레지오같은 작은 그룹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공동체는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한 모임 입니다. 구역 반모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본적으로 교회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나무가 되듯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운동이네요. 조금씩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변화된 나와, 교회,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M.B.W의 정신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M.B.W운동에 관심있으신 분은 중앙성당 조정오신부님(TEL. 77-1713)께 연락주십시오.

「성령의 해」는 「희망의 해」

올해는 2000년 대희년 준비 둘째 해인 「성령의 해」이다 지난 해는 「그리스도의 해」였고, 다가오는 해는 「성부의 해」이다.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되는 2000년의 경축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 3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제삼천년기, 55항) 순례의 여정으로 되어 있다.

신앙인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덕행은 '믿음, 희망, 사랑'이다. 이 덕행을 일컬어 '대신덕'(大神德)이라고 한다. '대신덕'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로마 5, 2-5).

성령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해」는 이 대신덕 중에서 특별히 희망에 집중되어 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시간의 종말에 다가올 완전한 구원의 씨앗을 이 세상에서 북돋아 주시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신앙인들은 희망의 신학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45-46항). 그래서 「성령의 해」를 「희망의 해」라고 부를 수 있다.

기쁨과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10개월 13일 남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물건 구매 요령
알뜰시장보기를 생활화하여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살림꾼이 됩시다.

첫째, 지나치게 크게 포장된 제품을 피하자.
과대포장된 제품은 포장비용이 제품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값이 비싸고 포장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므로 여러모로 비경제적이다.

둘째,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자.
천으로된 시장 바구니는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기 좋고 영구적이며 알뜰주부라는 인상을 준다.

셋째, 다시 채워 쓰는 제품을 구입하자.
마요네즈, 케첩등의 식품이나 샴푸, 린스 같은 화장품, 세제등은 내용물만 구입하여 이미 있는 용기에 부어 사용하면 경제적이다.

넷째,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구입할 물건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도 절약하고 쓸데없는 구매도 막을 수 있다.

편안 눈 밝은 세상 —
정읍 한독 안경원
안경사 이 수 엽(필레몬)
박 은 숙(레지나)
우체국 정문앞 이안과 1층
☎ (0681) 538-3333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타)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원 아 모 집
대상 : 92년 3월 1일~
98년 2월 28일 출생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어린이집
전화 : 212-1618

축 개원
북일피아노학원
음대 피아노 전공
나 의 영(루시아)
안골 현대APT앞(구 현대피아노)
☎ 242-3284

사목단상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원철 신부/평화동본당 보좌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된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목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사목단상에 글을 쓴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하고 거절했더니, '투박한 글일수록 더 좋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 얼떨결에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글을 쓰려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서품식을 보면서 작년에 저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제생활의 모토로 정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1데살 16-18)라는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고 살았던가? 사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서 쾌락을 쫓으려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작은 불편에 불만을 터뜨린 적이 더 많았던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미사를 나오시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하고 인사를 건네시는 신자들을 대할 때면 참으로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언젠가 축일을 맞이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신 것은 제 삶의 앞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의 뒷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축하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신문기사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오랜 사목생활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겸손의 말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부님'하고 부르면 그말이 어색했던 적이 불과 얼마전 일인데, 이제는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마저 드는 것은 아마도 초보 사목자로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미사경문을 제대로 보는 것도 정신없어 했는데, 지금은 미사를 집전하면서 동시에 딴생각을 할 정도로 노련함(?)을 보이는 것도 그만큼 무디어진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제로서의 1년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만들어 쓰시고자 함을 느낍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것이 인간인 나에게는 무리한 요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사제의 삶에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품 1주년을 보내며 부족했던 사목자로서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결혼의 시작
메종 프랑세스
에서 준비하세요
유럽특유의 고품격 웨딩샵
- 다양한 가격의 웨딩드레스
- 이미지 메이크업, 웨딩메이크업
- 피부관리 전문
이 지 연(데레사)
덕진광장앞
☎ (0652) 251-1210, 1211

서울가정의학과 의원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의 :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앞
☎ (0652) 75-0550~1

제일학문외과
대장 · 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전문의 최 성 양(루가)
안 해 선
익산시청↔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경일 조립식 건축
주택 · 교회 · 공장
실내 인테리어
일반 건축 토목
김 해 선(레미지오)
☎ (0652) 245-1611~2
FAX 245-1610

아포 · 사진연구실
미술작품 슬리이드 작업
가족사진 · 웨딩사진
김 진 성(스타니슬라오)
우전성당옆 성원아파트상가 1층
☎ (0652) 223-8546
011-681-9660

결혼상담소
좋 은 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87-3325, 88-3325

복자성당 성서통독 수료

복자성당(前 주임 정승현 신부)은 1996년 8월부터 98년 1월까지 65주간에 걸쳐 구약 성서 통독을 실시하여 38명의 성서 통독자를 배출했다. 성서 통독모임은 매주 제시된 분량의 성서를 읽고 묵상한 후 화요일마다 성당에 모여 본당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말씀 나누기로 진행되었다. 신자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드리는 말씀나누기 시간을 통하여 큰 신앙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고 정승현 신부는 말했다. 이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구약성서를 완독한 신자들은 얼마 후에 시작될 신약성서 통독을 기대하고 있다.

요나의 성서교실(구약성서 통독을 마치고)

이정희/복자성당

어린 학생처럼 조금은 들뜬 가슴으로 성서 교실을 시작한지 18개월, 하느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수강자 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와 눈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숭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본당신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성서통독을 시작했을때는 우리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구약시대의 따분한 족보와 엄격한 율법, 생활 관습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사울 등 창조주 하느님께 선택받아 기름부음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뭇 백성과 한가지로 하느님께 불목하며 불충과 배신을 저지르는 모습을 대할 때는 분노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나오는 강렬한 빗줄기처럼, 결코 멈춤이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창조와 선택에 대해 지속적이고 유일하며 체계적인 구원과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희망과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야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한없는 사랑과 힘과 빛, 용기와 모든 덕, 모든 선의 말씀들로 무장된 듯이 든든하고 가슴 벅찼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독할 때는, 장차 오실 어린양의 수난이 연상되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몇번씩 정독하며 회심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도 이스라엘 못지 않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요나처럼 불평도 하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맙니다. 또한 성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시대의 지표가 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구원의 역사였지만,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신비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 위에 있음을 감사 드리며, 함께 성서통독의 여정을 걸어온 형제 자매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한 성서공부와 미사 성제의 참여, 기도로써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상, 순종,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해를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착한목자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마리아의 집"은 미혼모들과 작은 생명들을 지켜가는 보금자리입니다.
이 순간에도 임신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춘천시 석사동 194 마리아의 집 (0361) 252-4617, 262-3673

영창피아노사 전주대리점 (A/S 전문점)
• 36개월 할부판매
• 중고 보상판매 환영
전상진(베드로) · 유명숙(요안나)
진북동 구서중로타리 동서중권 맞은편
☎ 252-0103~4
84-6085

코알라 놀이방
대상 : 0세~취학전 어린이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시간제 애프터 스쿨, 미니 유치원 교육, 저소득층 자녀 혜택, 차량운행
위치 : 효자동 기독병원앞/어린이 놀이터옆
☎ 221-7868 FAX 221-7871
원장/전 선 자(데레사)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김 태 우(알퐁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이지문구 유통상사
에버그린 모나미 전북대리점
팬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 상 남(요한)
이사 : 전 현 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18-23(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믿음, 온유, 절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교구소식

❖15대 평협 회장 선출
교구 평신도 협의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제15대 평협회장에 김형렬 바오로(서신동 본당)형제를 선출하였다. 신임 평협회장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구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 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때 : 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신학교 복학생 피정
· 때 : 2월 16일(월)~23일(월)
· 장소 : 글라라수녀원

❖레지오 단원교육
· 때 : 2월 16일(월), 오후 7시
· 장소 : 쌍교동 성당

❖'98 교리교사 학교
· 때 : 2월 20일(금)~23일(월)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전주교구 빈첸시오 월례회
· 때 : 2월 21일(토), 오후 3시
· 장소 : 어양동 성당

❖혼인강좌
· 때 : 2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전주 하나회 월례미사
· 때 : 2월 22일(일),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무주구천동 리조트미사
· 때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리조트입구 왕성가든

❖광주가톨릭대학 주소변경
(우) 520-840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170
☎ (0613) 37-2181~4
FAX (0613) 37-2185

마음의 양식

말씀의 텃밭
두봉. 배은하/144면/4,500원
재의 수요일부터 예수부활 대축일까지 사순절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이끌어주는 다해 성서묵상집

비유이야기
비디오/56분/20,000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들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실감나는 영상으로 보여준다.

매일의 기도
바오로 딸/500원
개정된 주요기도문과 일상의 간단한 기도를 모아 만든 소책자

가톨릭 신학원 성서부 학생모집

가톨릭 신학원 성서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1. 성서교실반(2년과정) 2차
   자격 : 원하시는 분 누구나, 1차 졸업자도 재신청 가능
   수업일 : 매주 목요일(낮반 오전 10시~12시, 저녁반 오후 7시~9시)
   접수 : 2월 26일~3월 5일 등록비 : 5만원
   개강미사 :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2. 말씀나눔반 1차
   자격 : 성서교실반을 졸업하신 분들 수업일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12시)
   접수 : 3월 2일~9일 등록비 : 5만원. 개강미사 : 3월 2일 오전 9시 30분
3. 접수처 : 가톨릭 신학원. 전화 (0652) 74-5879

중앙성당에서는 주일 낮미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신자분들을 위해서 오후 8시 30분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늦더라도 꼭 주일미사에 참여합시다.

제25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일시 : 2월 16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천주교 전동성당
부의안건 : 199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외 5건
임원선거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병 오

성바오로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 2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 전주 바오로딸 서원
T. (0652) 252-3398
대상 : 매스컴을 통해 복음을 전할 미혼 남성

청솔떡백화점
각종 떡의 모든 것. 주문배달
이 종 학(요 한)
이 승 철(모이세)
남부시장 매곡교↔전주교 중간
☎ 83-0275, 84-0275

김회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팬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 수 관(야고버)
심 경 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L G 에 어 콘
98년 신제품 15% 할인+
6개월 무이자 할부
할부대금은 4월부터 불입
식당용 냉장고 취급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검소와 나눔과 희망의 삶을 살아갑시다."

1. 모임 : ① 울뜨레야 - 교중미사 후
② 제대회 - 18일(수) 전 10시
③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청년회 - 22일(주일)
2. 성전기금 마련헌금 : 오늘 2차헌금 있음.
3.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 : 오늘 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4. 새 영세자 모임 : 오늘 전 10시, 만남의 방
5. 국악성가 연습 : 주일 교중미사 전 15분씩 성가연습 있음
6. 성지가지 회수 :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람.
7. 가정 방문 : 19일(목) 후 2시, 쌍용구역
8. 구역 미사 : 20일(금) 후 7시 30분, 쌍용구역미사
9. 교리교사학교 : 20일(금)~23일(월), 신임교리교사 연수
10. 혼인 재신식 : 22일(주일) 후 7시미사중에 ※ 오늘까지만 접수받음
11. 성령묵상회 : 3월 2일(월)~7일(토) 매일 후 7시부터 시작
※ 22일까지 접수받음. 견진 대상자는 의무임.
12. 교무금 월납제 : 모든 가정은 교무금 신립과 월납을 바랍니다.
13. 특별 헌금 : 금주 봉헌자 - 1명, 50,000원
14. 금주 전례 : 해설 - 문승욱, 독서 - 윤재성(사도요한) 부부
봉헌 - 박영래(프란치스코) 가정
15. 차주 전례 : 해설 - 김학덕, 독서 - 성락인(요셉) 부부
봉헌 - 최석인(바오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438,460원 ☐ 교무금 : 1,283,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쉬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전달합시다 !
⊙ 오늘 : 교무금 납부일
※ 지난해 교무금을 정리해 주시고 금년 교무금 신립바람.

1. 금주 모임 :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교육관)
2. 주간 모임 : ① 블링회 - 18일(수) 후 7시, 1회의실 ② 자모회 - 19일(목) 전 10시, 유아실 ③ 둥산회 - 21일(토) 후 1시, 성당에서 출발
3. 차주 모임 : 애령회, 방주회, 청년공동체
4. 수녀님 이임 : 이데레사 수녀님, 김크리스티나 수녀님
※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5. 신 영세자 재교육 및 피정 : 15일(오늘) 후 2시 30분, 교육관
※ 1997년도 영세받은 모든 신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람
6. 교리교사 학교 : 20일(금)~23일(월), 나바위 피정의 집
7. 유아 세례 : 26일(목) 후 7시 30분, 22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8. 재의 수요일 : 25일(수) 후 7시 30분, 22일(일)까지 성지가지 회수
9. 부지헌금 감사 ! : 이숙자 20만, 김종숙 10만 누계 285,288,180원
10. 축 ! 혼인 : 신랑 - 김성문(아오스딩)의 장남 김경훈(돈보스꼬)
신부 - 오장수(베드로)의 장녀 오명선(실비아)
11. 독서 : 금주(새벽) - 박태석, 박미애, 차주 - 황삼랑, 장남성
(공식) - 이성기, 정성옥, 차주 - 윤태희, 김영숙
12. 미사 안내 : 금주 - 로사리오의 모후Pr., 차주 - 천상의 모후Pr.
13. 주차 안내 : 금주 - 구세주의 모후Pr., 차주 - 정의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 1,814,700원 ☐ 교무금 : 1,998,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복되어라,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 축 ! 부임 : 환영합니다. 박기준(라우렌시오) 신부님

1. 모임 : ① 울뜨레야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③ 요셉회, 사라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지가지 가져오세요 : 재의 수요일 - 25일
3. 쉬고 있는 이웃을 찾아 봅시다.
4. 성가 연습 : 매주 금요일 후 8시
5. 의자 대금 :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6. 금주 전례 : 해설 - 박태승, 독서 - 이종근, 강정자
7. 차주 전례 : 해설 - 김영순, 독서 - 하진호, 이현주
8. 청소 봉사 : 3단지와 까치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1,082,650원 ☐ 교무금 : 669,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복되어라,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

1. 금주 모임 : ① 예비신자 환영식 - 낮미사중
②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 성지가지를 가져 오십시오.
2. 예비신자 교리 : 17일(화) 후 8시, 18일(수) 후 8시
3. 성가 연습 : 17일(화) 후 8시
4. 구역 미사 : ① 화산1 - 20일(금) 후 7시 30분
② 서원 - 27일(금) 후 7시 30분
5. 양업회 : 20일(토) 후 7시 30분
6. 차주 모임 : 성모회 - 낮미사 후
7. 청소 봉사 : 21일(토) - 자비의 모후Pr.
8. 폐품 정리 : 21일(토) - 평화의 모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9. 금주 전례 : 새벽 - 곽순옥, 낮 - 홍정의, 저녁 - 김영종
10.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최정순, 저녁 - 정인자
11. 성전신축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 음반보급 활동에 협조를 바랍니다 : 서울교구 목5동 성당
28일(토) 후 2시 출발, 3월 1일(일) 자정 도착

☐ 지난주 봉헌금 : 885,200원 ☐ 교무금 : 1,590,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1,595,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올해는 「본당 선교 계획 실천의 해」입니다.
선교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관심과 주는 즐거움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1. 금주 모임 : ① 울뜨레야 - 15일(일) 후 8시 ② 사회복지분과회의 - 18일(수) 전 10시 ③ 청소년분과회의 - 20일(금) 후 8시 ④ 꼬미시움 - 21일(토) 3시미사 후
2. 재의 수요일 : 25일 - 작년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3. 1일 교리교사 교육 : 17일(화) 전 10시~후 6시, 본당
4. 신임 교리교사 학교 : 20일(금)~23일(월), 나바위 피정의 집
5. 가정 방문 : 19일(목), 삼천주공 2A구역
6. 이웃사랑 기금 내주신 분 : 양종문 2만, 김순희 1만5천, 송영선 2만, 이병권 2만, 최예순 5만, 오민선 3만, 전순자 10만, 김주홍 1만, 이정숙 2만, 반석윤 10만, 이호중 10만, 라병희 1만, 김정자 1만, 이 도 20만, 정해금 5만, 서정홍 5만, 김공님 1만, 최안나 5만, 허순자 33만, 이순이 5만, 권선자 1만, 김숙영 4만, 이경순 5만, 최낙원 2만, 이명숙 1만, 강상님 1만, 오유미 1만, 김순님 5만, 양용재 2만, 김우규 4만 5천, 홍양례 5만, 장숙자 5만, 이호순 1만, 한태중 13만, 강숙희 1만, 김정학 1만, 김영옥 3만, 이정규 2만, 이정희 3만, 백성숙 3만, 김은숙 2만, 이성렬 8만, 최성자 10만, 박영권 10만, 고기봉 10만 ※ 감사합니다.
7.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봉사 : 효자주택구역
8. 전입가정 환영 : 박종희(세군다)-개나리A 111동 303호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축 ! 서석구(사도요한)신부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임하는 김순태(요셉)신부님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기도합시다.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844,920단

1. 금주 모임 : ① 울뜨레야 정기총회 - 공식미사 후
② 제대회, 구역장회 - 20일(금) 10시미사 후
2. 축 ! 2단계 기사교육 수료 : 이기호(도미니코), 안증자(마리스텔라)
3. 사목회 임원명단 : 사목회장 - 박영근, 부회장 - 이종상, 김낙완
총무부장-강인성, 선교부장-김광년, 전례부장-이종표, 교육부장-정환준, 재경부장-최봉춘, 청소년부장-강덕현, 홍보부장-김용만, 사회복지부장-김영길, 애령부장-엄익도, 여성부장-이건옥, 사업부장-신승철
4. 성체조배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금요일 저녁미사 전
5. 예비신자 환영식 : 18일(수) 저녁미사 후 ※ 많은 인도 바랍니다.
6. 중 · 고등부 학생 겨울 피정 : 22일(일)~23일(월), 격포공소
※ 15일(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성지가지 회수 : 22일(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8. 축 ! 혼인 : 22일(일) 후 1시 본당, 신랑 - 문성용, 신부 - 최은희(리아)
9. 차주 : 성전신축 2차헌금 실시, 승리의 여왕Cu., 사목회, 요셉회
10. 금주 전례 : 해설 - 김낙완, 독서 - 정진호, 김홍숙
봉헌 안내 - 정영환, 최영님 부부
11. 차주 전례 : 해설 - 이인숙, 독서 - 김낙완, 김순자
봉헌 안내 - 강신호, 임애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042,460원 ☐ 교무금 : 3,064,2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시다 ! "